

되었다(通信參照)。

◎ 韓國美學會創立

지난 九月二十八日 韓國美學會가 創立되어 會長에 朴義鉉氏, 副會長에 白琪洙氏를 選出하였다.

앞으로 年二回의 研究發表會를 가지고 會誌도 發刊하리라고 한다.

法住寺 通信(二)

金 東 賢

木部 解體는 順調롭게 進行되어 九月二十四日 心柱 一材만을 除外하고 完全 解體되었다.

九月二十五日 文化財委員會 崔淳雨 秦弘燮 兩委員과 黃壽永 鄭永鎬 教授 申榮勳 文明大 崔完秀 諸氏의 現場 來到와 며를 같이 하여 寺刹側의 立會下에 心柱를 解體하였다(午後 三時).

豫想하였던대로 心柱 밑 心礎에서 舍利孔과 舍利裝置를 發見하게 되었다.

舍利裝具는 多幸히 重建時의 安藏 모습대로 保存狀態가 良好하여 크게 注目을 끄는 가운데 精査를 거쳐 조심스럽게 露出되었다.

一 括의 舍利壯嚴具는 翌日 午前 十時 住持室에서 文化財委員會側과 寺刹側의 立會下에 再調査 確認되었다.

銀製舍利壺 內의 舍利 十八粒은 境內 大雄殿에 奉安되고 舍利裝具의 一括遺物은 委員會側과 寺刹側의 點檢下에 品目을 作成하여 封合되고 寺刹에서 保管토록 하였다.

內陳 및 外陳 礎石은 心礎石을 中心 最高位에 四天柱 礎石·內陳高柱·礎石·外陳邊柱 礎石·順位의 下向式 水平差를 나타내고 있었다.

礎石 上面에는 重建時의 尺줄로 推定되는 墨痕이 發見되어 柱間 測定에 正確한 數値를 얻게 되었다.

外陳邊柱 礎石과 內陳高柱 礎石間에서 小數의 埵片이 發見되고 內陳高柱 礎石 外緣部에 다들길된 手法으로 보아 原來는 埵이 깔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外陳礎石을 除外한 나머지 礎石들은 變動이 甚하지 않은 것이나 實測値의 綜合의 檢討가 있고 部分的인 試掘에 依해 判定된 것으로 생각된다.

基壇은 原來 二成基壇이었음이 工事 中 確實히 밝혀졌다.

下成基壇은 埋沒되어 露出되지 않았으므로 設計內譯에는 削除되어 있어 그 復原方法이 具體的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問題로 되었다.

下成基壇 復原時 埋沒된 一尺內外의 土壤을 除外하면 문제는 수월하나 이에 따르는 附隨의 條件이 生길 것이다.

即 近者에 埋沒되었던 基壇部를 돌우어 올려 놓은 捌相殿 西便의 石蓮池와 四天王石燈 等의 높이가 現狀에서 다시 原狀으로 復舊되어야만 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文化財委員會에 附議되어 그 方策이 決定되는 데에 따라 復原되도록 할이 可할 것으로 合議되었다.

十月五日 現在 基壇의 實測이 進行되고 있다. (一九六八, 十, 五)

紀 念 辭

— 第九卷 第十一號 通卷百號 —

一九六〇年 八月 十五日 「考古美術」誌를 創刊한지 八年 三個月 一九六八年 十一月 十五日로 本誌는 드디어 誌齡 一〇〇號가 되었다.

創刊辭에 있듯이 이 작은 油印物은 同人誌로서 「이 方面 研究의 資料」를 保存하려는 뜻에서 刊行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發表된 論文 六百數十篇, 資料 百數十篇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 中에는 重要한 遺蹟이나 遺物이 적지 않아 國寶 또는 寶物로 指定된 수도 數十點이 된다. 한편 別途로 資料集을 發刊하여 二十輯에 達하였다.

이제 同人會는 지난 二月 「韓國美術史學會」로 發展하였고 앞으로 發刊된 「考古美術 一〇一號」는 創刊號에서 期待하였던 바와 같이 「油印에서 活印으로」資料誌에서 學術誌로 發展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創刊부터 적지 않은 隘路가 있었으나 多幸히 많은 人士들